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 서(1517년 10월 31일) 뜨겁게 불타오른 종교개혁 495주년을 기념합니다.

양재성 목사님(기독교환경운동연대)께서 <은총의 숲> 조성 사업 현황을 보고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선교회별로 과일을 봉헌합니다.(토요일 2시까지 본당으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오후에는 감사절 축제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초록장터한마당이 예배 후 교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품목은 의류, 신발류, 잡화, 쫓대, 환경관련서적, 재활용품, 관엽류, 선인장, 호박, 고구마, 유기농 알타리 등입니다.

참빛찬양대가 주관하는 합창세미나가 오후 3시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남북유스선교합창단 지휘자인 김승애 선생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가 10월 30~31일 대전에 있는 하늘문교회에서 열립니다.

제2의 종교개혁은 생태계보전의 과제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지구온난화 원인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육식을 자제하고,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채식을 실천합시다.

오늘 식당 봉사 : 박홍재 차혜심 허명선 정연희 한상경 정선희 이광욱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임미심 김문주
 오늘설거지봉사 : 이광욱 한기택 이준하 김영아
 다음주설거지봉사 : 박시내 김세진 김지호 박상규
 새 교 우 : 심용보 (4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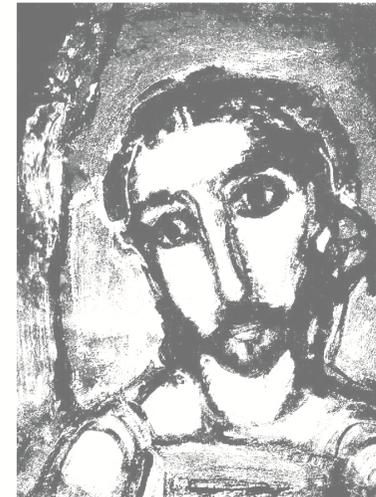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인간 모든 예측과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헛된 교만을 버립니다. 어두운 역사 한복판에도 신실한 종을 세우셔서 개혁의 횃불 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우러르며 우리 안의 선부른 절망과 냉소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땀 흘려 일하고, 고요히 기도하고, 따뜻하게 사랑함으로 주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참 사람으로 사는 것마저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김미순 김상근 최선미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김종술
 박미란 김종철 고영애 김준호 곽혜자 김훈동 유경순 박규석 박경선
 박석희 조항미 박성호 박영희 박옥식 박준희 이기분 배부례 변재민
 이소혜 신진식 변혜정 안보혜 윤미경 윤성종 김윤정 이경남 이광섭
 이준림 이지훈 이진영 한양미 장원호 박성희 정완수 김재광 최다미
 최미자 한상익 정영선 허명선 허준호 LK 무명2

감사헌금:

김미희 김정진 배삼순 신진식 변혜정 신이현 이광섭 김수연 이유일
 장원호 박성희 정완수 김재광 조윤숙 한인철 한상익 무명2

녹색꿈헌금:

김기석 김용길 이선화 이진영 한양미 최영혜

생일감사헌금:

유영남

장혜숙	백혜숙	박영희	조순덕
노순옥	박성희	이준희	김윤복
최희영	최경미	최희영	정복순
장영숙	신영신	장영숙	신영배
정경례	진정숙	정경례	이봉순
박홍재	곽권희	조영순	김순복
박효선	허정윤	배삼순	박효선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오복순
이형숙	권미숙	관명자	김재광
안홍숙	오현정	관현정	정현양
정영선	서정순	정침현	송진숙
박혜경	조항미	정현숙	심상숙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마음으로 읽는 글

가을 메세지

어느새
다가와 앉은 가을
배고픈 고독도 털어내고

고운 빛깔로
밀린 숙제 하듯 멈출 줄 모르는 손길
눈높이만큼 풍년을 거두란다.

서서히
일어서는 단풍나무 수채화
메마른 영혼에 비를 뿌리고
넉넉한 푸념을 토해
지나간 추억에 발자국 찍는다.

뿌린 만큼 거둬야 하는
섭리 속 우린
낙엽 스치는 바람처럼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싶다.

- 서정순 집사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희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탐욕에 이끌리는 삶, 세상의 환심을 사려다가 기울어진 삶,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삶을 뒤로 하고 담대한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논리에 힘없이 굴복하며 사느라 믿음의 기백을 잃어버린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일하며 기도하는 일상의 개혁자,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은총의 숲 보고 / 양재성 목사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안정숙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홍재 권사	조재훈 선생 류건형 집사

10월	영접위원	방문성 권혁순 박규석 권미숙 박경선 박혜경
	헌금위원	조병무 이형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딱 세 가지 소원

행복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깨뜨려 부술 것들이 또 있다. 당신의 태도 몇 가지를 바꿔야 한다. 어떤 태도?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의 태도다. 당신은 “나하고 놀아주지 않으면 집으로 갈 테야”라고 말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평상시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지만 않았어도 행복했을 텐데.” “이 일만 마무리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 행복에 이런저런 조건을 달기 때문이다. 아직도 당신 속에 이런 태도가 남아 있는가? 있거든, 버려라.

온갖 것을 달라고 하느님께 떼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하느님이 그에게 이르셨다. “네 성화에 질렸다! 딱 세 가지 소원만 말해라. 모두 들어주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다. 다시는 네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자, 세 가지 소원을 말해 보아라.”

그가 신이 나서 하느님께 여쭙었다. “아무거나 말씀드려도 됩니까?”

“되지! 하지만 세 가지다. 그 이상은 안 돼.”

“하느님도 아시지요?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제 마누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늙은 여편네가 저를 여간 구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제 마누라를 없애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네 원대로 해주마.”

곧 아내가 죽었다. 그는 약간 미안했지만 이내 흐뭇해져서 속으로 생각했다. ‘매력 있는 젊은 여자와 결혼해야지.’

그런데 일가친척과 친구들이 장례식에 와서 고인이 생전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회상하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리고 슬

퍼졌다. 결국 그가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하느님, 돌이켜보니 제가 참 훌륭한 아내와 살았군요. 그런데 아내가 살았을 때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하느님,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좋다. 이것으로 너의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에게는 소원 하나가 남았다.

‘뭘 달라고 하나?’ 그가 자문을 구하러 친구들을 찾아갔다.

한 친구가 말했다. “돈을 달라고 하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되는 세상 아닌가?”

다른 친구가 말했다. “건강을 잃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람? 건강을 달라고 하게.”

곁에 있던 다른 친구가 말했다. “넌 모래 죽는다면 건강해서 뭘 하나? 영생불멸을 달라고 하게.”

그 가련한 사람은 정말 무엇을 소원해야 할는지 알 수 없었다. 다른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영생불멸이 무슨 소용인가? 사랑을 달라고 하게.”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3년……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하느님이 그에게 물으셨다. “언제 너의 세 번째 소원을 말할 참이냐?”

그가 대답했다. “하느님, 머리가 복잡해서 무엇을 소원해야 할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께서 가르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웃으며 그에게 이르셨다. “좋다. 네가 무엇을 소원하면 좋을는지 말해주마.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라. 그것이 비결이다!”